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00 그대 그 사람(재)	00 KBS 뉴스광장	00 코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10 부부극장 공작지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15 코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2014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튼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KBS네트워크특선 이름: 윤종복이름:다은사람들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 드라마 (골든크로스)(재)	00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재)	00 2014서울디지털포럼 특집다큐 <SDF의 비밀>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 미니시리즈 (개과천선)(재)	00 SBS 12뉴스 30 2014서울디지털포럼 특집다큐 <여친사가 산다>
50 제68회 황금사자기 교교구대회 결승	00 리중계방송 임시국회 긴급현안질의		30 MBC 월드컵(재)	00 SBS 뉴스 10 중계방송 세월호 참사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물어버린 숲(재) 25 뼈뿌려 놓자(재) 55 TV 유치원 풍다공	00 MBC 경제 뉴스 10 윙까쇼나타 40 헬로킴스 아하! 과학탐험대(재)	10 2014서울디지털포럼 특집 SBS 이슈인 사이트
1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튜튼 생활체조(재)	25 코파 반장의 통화 수사대 55 위기탈출 넘버원(재)	30 똑?똥! 키즈클럽	00 2014서울디지털포럼 기초에서 공공선을 찾다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2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KBC 생방송 투데이
40 신대동여지도 스페셜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킬미힐미 하나)
30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연예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광주충구 6·4지방선거 후보초청 토론회	00 수목드라마 (골든 크로스)	00 수목미니시리즈 (개과천선)	00 드라마 스페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00 먹방소맛의 전설	30 KBS 뉴스라인	10 가정의 달 특선 영화 (아부지)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오 마이 비비
30 모큐드라마 <싸인>(재)	3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35 MBC 뉴스 24 55 스포츠다이ารี	35 나이트 라인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4:45 곤	19:30 EBS 뉴스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하이힐-하루 이 시간 힐링	15:00 지구를 지켜라	19:50 다문화 고부열전(재)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15 마사와 곰	20:40 다큐 오늘
07:00 곤(재)	11:20 세계대마기행 (순다열도)(재)	15:30 모어라 덩동영 스페셜	20:50 세계대마기행 <오스트리아>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덩동영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오색의 봄)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초대석	16:20 우당탕탕 아이쿠	21:50 EBS 다큐 프리인
07:45 로보카 폴리(재)	13:05 지식채널e	16:30 책갈피 요청 또보	22:45 <간강실리보고서-황윤의 반란>
08:00 덩동영 유치원	13:10 사이틴	16:45 Why-최고! 호기심따지(재)	22:45 극한직업
08:20 책과 땅(재)	13:20 풀꽃! 파파는 즐거워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3:35 세계 건물주 아틀라스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30 고양이 파피	17:15 꼬마버스 타요	24:05 지식채널e(재)
08:50 Why-최고! 호기심 따지	13:45 반짝반짝 별명 클럽	17:30 로보카 폴리	24:10 한국 영화 특선
09:05 책갈피 요청 또보(재)	14:00 메탈돌	17:45 두디다공	24:10 한국 영화 특선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재)
09:20 미술탐험대	14:30 코코몽2	18:00 생방송 퓌! 퓌! 보나하니	
09:35 아기 고릴라 등등		19:0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재)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국어 I)	12:10 5분 과탐·생명과학 I
01:40 "	(국어 II)	12:15 수능 특강 <수학 I B형>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II>	13:05 <미적분과 통계 기본>
02:30 "	(수학 II)	14:00 "
03:20 뉴 탐스런	<한국사(하)>(재)	14:50 "
04:10 "	<과학>	15:40 "
05:00 "	<한국사(하)>(재)	16:30 "
05:50 2013 포스	(수학 II)	17:20 "
06:40 압축탐스런	<생명과학 I>	18:10 "
07:30 2014 포스	(문학 II)	19:00 "
08:20 올림픽스 <영어독해 기본 II>(재)	19:50 5분 과탐·생명과학 I (재)	
09:10 "	<수학 I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B형>(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1:00 "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2:00 인터넷 수능 <문학 A형>
11:40 박복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23:00 "	<영어독해연습①-종합편>

EBS플러스2

07:00 2014 공민증개사 시합대비 강좌	15:50 "	(사회 4-1)
07:30 친절한 수학 익힘풀이 (6-1)	16:20 "	(사회 5-1)
08:00 정보보안산업기사시험 시합대비강좌	16:50 "	(사회 6-1)
08:30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6-1)
09:00 출제문 수확 EBS MATH		
09:10 TV 중학	(국어 I②)	18:00 TV 중학 (영어3-1)
09:50 "	<수학> (하)	18:40 "
10:30 "	<도덕>	19:20 등업시공 (사회3-1)
11:10 "	(국어 I③)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11:50 "	<수학2(하)>	20:40 "
12:30 등업시공	(사회1)	21:20 "
13:10 "	<역사>	22:00 "
13:50 "	<역사2>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중급)
14:30 "	(사회2)(재)	23:20 중학e포스 영문법3
15:20 만점왕	(사회 3-1)	24:0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1일(음 4월 23일 壬辰)

子	36년생 활로가 트이는 기분이 조성되리라. 48년생 바라던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 기대해도 좋다. 60년생 간접적으로나마 궁급 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 72년생 탄식하는 모습이다. 84년생 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6, 12
丑	37년생 의외의 것이 태반이나, 49년생 한 번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61년생 세밀하게 조절해야 할 입장이나, 73년생 부담스러울 것이다. 85년생 바라던 일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행운의 숫자 : 35, 14
寅	38년생 분주한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여러 가지 보인다. 50년생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밝아졌다. 62년생 순리대로라면 행운의 여신이 문을 노크 하리라. 74년생 추진할 수 있는 적기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80, 91
卯	39년생 여태까지 불투명하여 왔던 것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리라. 51년생 자주 접하다보면 익숙해진다. 63년생 비바람이 치고 있으니 활동을 자제해야 할 때다. 75년생 내세우던만 맞설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46, 05
辰	40년생 좋은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는 모습이다. 52년생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64년생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76년생 복잡적이고 다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58, 17
巳	41년생 시기성조이니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겠다. 53년생 상대의 표정과 언행은 자신의 기술이나, 65년생 머지않아 곧 결말이 날 것이니 차분히 기다리라. 77년생 정도를 효율적으로 조절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0, 59

午	42년생 함께할 자리에 빠져서는 아니 되겠다. 54년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용이하다. 66년생 궤를 달리하는 이가 보인다. 78년생 벗어나려는 노력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제자리결정만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0, 31
未	43년생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55년생 속단은 금물이나 차분하게 생각할 일이다. 67년생 현재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활로가 트인다. 79년생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22, 75
申	44년생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속이라도 편하리라. 56년생 반드시 억제하여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68년생 녹슬지 않도록 늘 갈고 닦아야겠다. 80년생 우회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69, 39
酉	45년생 양면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가 가장 좋다. 57년생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에 충실해야겠다. 69년생 유혹에 이끌리다 보면 후회하게 되리라. 81년생 당연시 해 왔던 것 속에 문제점이 만연해 있다. 행운의 숫자 : 96, 70
戌	46년생 중용으로써 삼가면 만사가 흥통할 것이다. 58년생 상대의 배려에 뜨겁게 감동 되리라. 70년생 중구중곡으로는 해결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82년생 지나치다보면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18, 64
亥	47년생 방심한다면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다. 59년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니 여유를 가져도 된다. 71년생 좋은 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라. 83년생 불가항력적이므로 겸허히 받아들이라. 행운의 숫자 : 13, 8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선택2014 '무한도전 차세대 리더 선거'



6·4 지방선거 겨냥... 정치풍자에 웃음과 시청률도 회복

“무한도전 선거 투표율이 6·4지방선거 투표율보다 높을 겁니다.”
50대 시청자 김선미(50) 씨는 MBC TV ‘무한도전’이 진행 중인 ‘차세대 리더 선거’에 출연 대중의 관심이 엄청나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실망,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요즘 한편의 TV 예능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거대한 곳을 끌어주며 ‘정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시청자들은 배를 잡고 웃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그를 당선시키기 위해 결집하며 나아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투표’라는 점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무한도전’이 예전만 같지 못한 시청률에 대한 위기감과 6·4 지방선거를 겨냥해 기획한 ‘무한도전 차세대 리더 선거’가 유치원생부터 할머니까지 시선을 끌며 최고의 화제에 올랐다. 실제 선거가 치러지는 방식과 똑같이 진행되는 이 선거에서는 ‘무한도전’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다. 지금까지는 유재석이 이 프로그램을 리드해왔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리더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처음에는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 노홍철, 하하 등 ‘무한도전’의 멤버 6명 전원이 출마했지만, 실제 정치판에서 흔히 보듯 여기에서도 정치적 계산에 합종연횡이 펼쳐진 끝에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최종 후보는 유재석, 정형돈, 노홍철 등 셋으로 좁혀졌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는 각자의 공약을 내걸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세를 펼쳤으며, 심지어 토론회도 열렸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는데, ‘무한도전 차세대 리더 선거’ 역시 지난 17~18일 전국 10개 도시 11개 투표소(서울 2곳)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제 선거와 같이 진행됐다.
웃자고 시작한 예능프로그램의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는 무려 8만3000명. 다양한 연령층이 투표소를 다녀갔고, 외국인도 있었다. 현실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도 투표

표 후 인식을 올렸을 정도.
‘무한도전 차세대 리더 선거’는 지난 17일 후보 토론회를 마련했다. 실제 시사토론 프로그램 진행자로 낮이 익은 정관용 씨를 사회자로 내세워 ‘형식’을 제대로 살렸다. 후보자들은 웃기 자고 댔었지만 사회자만큼은 정색을 하고 토론회를 이끌어 가려 해 웃음과 정치풍자가 공존하는 시간이 펼쳐졌다.
‘무한도전’이 이러한 아이템을 기획한 것은 현실 풍자 측면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때 화제성 못지않게 시청률에서도 고공행진을 펼쳤던 ‘무한도전’은 언제가부터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예전만 못하다’는 평을 듣기 시작했다.
이러한 절박함에서 시작한 것인 이번 ‘차세대 리더 선거’인 것. 예능프로그램도 이처럼 미래를 절박하게 고민하는데 하루 며칠씩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쟁을 올리는 대목이다.
‘무한도전’은 이번 선거 특집을 통해 ‘웃음도 회복했다. 특히 지난 10일 방송된 김영철과 유재석의 ‘물화’ 편은 다시보기 열풍이 이어지는 등 ‘대박’을 터뜨렸다. 한마디로 ‘웃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희애-유아인 주연 드라마 ‘밀회’를 패러디한 ‘물화’ 편에서 유재석은 김희애를 우스꽝스럽게 패러디한 김영철을 코미디 스승으로 사사하면서 ‘개인기 레슨’을 받았다.
지난 3일 시작한 ‘무한도전 차세대 리더투표’는 이처럼 정치 풍자쇼를 펼치면서 웃음과 시청률도 회복했다. 매회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 등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시청률도 경쟁프로그램인 SBS ‘스타킹’을 앞서고 있다.
후보들은 유세과정에서 말과 행동으로 정치풍자를 날카롭게 하고 있다. 박명수가 애초부터 당선은 별무관심인데 “난 ○○을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 정형돈이 아이돌가수들을 응원하고 속속차림으로 유세하는 등 ‘보여주기’에 비호를 두는 모습, 노홍철이 “시청자는 부모님”이라며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줘야한다”며 자극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 등은 현실 정치와 오버랩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제작 중단 논란

제작본부장이 지시... PD협회 부당개입 강력 반발

KBS가 이른바 ‘외압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SBS에서도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논란이 일었다.
SBS TV 대표적인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31일 방송을 목표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아이템을 준비하던 중 제작본부장으로부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국민에서 세월호 관련 방송을 할 경우 부적절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와 함께 제작 중단 지시를 받았다.
제작진이 “정파성을 띠지 않고 객관적인 방송을 잘 만들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제작본부장은 6·4 지방선거 이후 방송할 것을 제안했고 방송제작이 중단됐다.
이에 SBS PD협회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해 총회 개최를 고지하자 그제야 뒷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게 원래대로 31일 방송이 가능하다는 의사가 전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SBS PD협회가 목동 SBS 사옥 내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알려졌다.
SBS PD협회는 성명에서 “우리 SBS PD들은 ‘그것이 알고 싶

다’의 세월호 참사 관련 방송의 준비 과정에 발생한 제작책임자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반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은 방송의 공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지속적이고 철저히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러기에 지난 8일(방송) 결정 당시에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던 6·4 지방선거라는 이유를 들어 다음 날 돌연 방송 여부를 뒤집어버린 과정에 심각한 의심을 놓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SBS PD협회는 제작책임자에게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참사 방송 여부가 하루 만에 번복된 이유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과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SBS 담당 간부 등과 통화는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영애 ‘대장금2’ 출연 무산

한류스타 이영애(43)의 출연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MBC 드라마 ‘대장금2’에 이영애가 결국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
MBC는 19일 “현재 기획 중인 사극드라마 ‘대장금’ 속편에 전편의 주인공인 이영애가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영애 측이 일선상의 이유로 출연이 어렵겠다고 밝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MBC는 이영애 측과 상호협

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그동안 준비해온 ‘대장금’의 리메이크 드라마 제작 등 후속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방송된 ‘대장금’은 국내외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 드라마’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으며 전세계에 한식을 알리는 데도 기여했다.
MBC는 “한류 콘텐츠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한류 드라마를 개발하고 제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